



[금융] 사업 넓히고 접근성 높이고 2금융권, 먹거리 개척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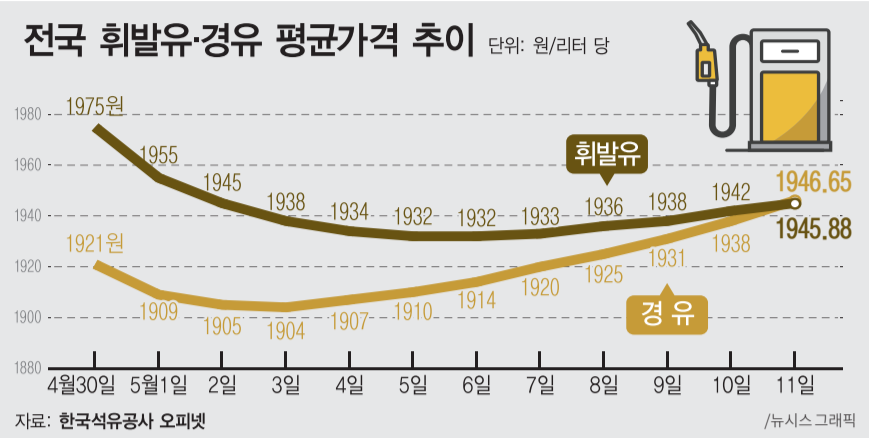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592.27 (-4.29)	코스닥	866.34 (+10.20)
금리 (미국 3년)	2.928 (-0.118)	환율 (원/달러)	1275.30 (-1.10) (11일)



경유값 평균 1946.65원 14년만에 휘발유 추월 자영업자 타격 불가피

14년 만에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생긴 수급 불균형에 세계에 미친 영향이 국내에서는 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946.65원을 기록했다.

경유 평균가 리터당 1946.65원 휘발유 1945.88원비 0.77원 ↑ 유럽서 경유값 오름세 잡지못해 우크라이나 사태, 세계적으로 영향

이는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 1945.88원보다 0.77원 더 높은 수치다. 오름폭도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컸다.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09원 오른 반면, 경유는 5.19원 오르면서 전국 평균 가격이 역전됐다. 국내에서 전국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2008년 6월 이후 약 14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우크라이나발 '가격 역전' 이러한 경유 가격의 상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가 유럽을 비롯해 세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산유국이자 석유제품 수출국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럼에도 국내의 경우는 SK이노베이션·에스오일·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등 국내 대표 정유 4사로 꼽히는 곳들 모두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수급 받지 못해 겪는 타격

은 거의 없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적은 이유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징과 인프라가 국내 시장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산 원유는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국내까지 이어주는 원유 운송용 파이프라인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도 해당 파이프라인도 없는 현실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운송 측면에서도 중동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원유를 대형 원유 수송선으로 옮기는 편이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부담 가중 문제는 자체 정유시설이 적은 유럽이 시장가를 올리며 국내 시장에 경유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자체 정유시설이 적은 탓에 러시아에서 경유를 수입해 왔다. 실제로 유럽은 전체 경유 수입의 6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이 경유 수입처를 더욱 다변화하다 보니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 결국, 러시아 제재 상황이 풀리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정부도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국내 경유가격 상승세를 잡진 못했다. 국제 석유 시장에서는 경유의 쓰임과 유통이 더 많아 경유가 휘발유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만, 국내는 상황이 다르다. 통상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은 휘발유보다 L당 200원가량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경유 가격 역전을 더욱 가속화한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8면에 계속>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기후위기에 몸살... 유통가 '판매전략 고심'

홈플러스, 신선농장 운영 늘리고 이마트, 스마트팜 운영 대폭 확대 롯데홈쇼핑, 여름상품 전략적 편성

‘기후위기’가 유통기업들의 일년스케줄까지 바꾸고 있다.

길어지는 여름과 겨울, 때 아닌 폭우와 가뭄에 과일·야채의 시세는 매년 예측할 수 없고 물량 확보도 어려워졌다. 에어컨, 온풍기 등 같은 계절 가전의 등장 시기는 매년 빨라지고 길어졌다. 기후 변화에 유통기업들은 빅데이터를 구축해 판매 시기를 조정하고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를 위해 전과 다른 전략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기후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 중인 곳은 신선식품과 소가전 판매를 다루는 대형마트 업체와 홈쇼핑 업체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기존 70여 곳이던 홈플러스의 ‘신선농장’의 수는 10배 늘어 700여 곳에 달한다.

홈플러스의 신선농장은 ‘계약재배’ 농장을 뜻한다. 재배 전 미리 농가와 일정 시세를 기준으로 계약한 뒤 수확과 동시에 작물을 마트 창고로 입고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이상기후로 작황에 이상이 생겨도 일정한 시세로 공급받을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또한 국내 산지 4곳의 20여 개 농장과 사전 협업을 통해 프리미엄 과일을 확보하고 있다.

이마트도 최근 기후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팜’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상기후 대응에 본격 나섰다. 이마트 측은 스마트팜을 확대하기로 한 데에는 잦아진 이상기후 속에서 매년 채소과일류의 물량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가전제품 판매 시기도 매년 변하고 있다. 특히 더위가 이르게 시작돼 늦게 끝나면서 냉방가전 판매 시기는 매년 앞당겨지고 판매량도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에어컨 판

매량이 급증하는 시기는 최근 5년간 2주 일 이상 빨라졌으며 반대로 난방가전 판매량은 줄거나 유지되는 수준이다.

롯데홈쇼핑은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4월 2주차인 9일 냉방가전인 에어컨 판매량을 편성했다. 판매 방송 진행 결과 준비 수량은 모두 매진됐으며 이날부터 30일까지 계절가전 주문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은 날씨가 판매 방송 편성에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2020년부터 자체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상 데이터를 예측해 상품 기획과 편성에 나섰다. 이번 냉방가전의 이른 판매는 4월 초 매년 있는 저온현상 없이 바로 기온이 상승한 데 따랐다.

김재경 롯데홈쇼핑 TV사업본부장은 “향후 자체 예측한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션, 가전, 식품 등 여름 상품을 전략적으로 편성해 고객 니즈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尹 “물가상승 원인·억제대책 계속 고민해야”

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제 “코로나 손실보상 조기집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회생 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과 더불어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일 문제가 물가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교체 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경제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그래도 국제 원자재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 가격이 폭등해 우리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선 때 약속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코로나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그것 자체가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재정 건전성이 많이 취약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당겨 조기에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빨리 국회로 이 안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

비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서도 다른 분야의 업무하는 사람들과 일을 공유하며 “궁임없이 (소통해) 구두 밀창이 닳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는 것은 정부·경제·사회·안보수석으로 해서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 함께 고민하고, 다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보고 일을 구두밭 바다에 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기자 pathfinder@

격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7 한화 (4면)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완전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 이준석 사과
▲ 송영길 “서울에 41만호 공급...IT·AI·바이오 특구 조성” /사진 뉴시스

▲ 민주당 부산시당, 6.1지방선거 ‘여성 후보 36%·청년 26%’ 공천
▲ 민주·정의 “尹대통령실 김성희 혐오 발언 극악...해임하라”



▲ ‘한덕수 인준 일정 불투명’ 여야, 첫 원내수석 회동서 이견 확인 /사진 뉴시스
▲ 6.1지선·국회의원 보선 제주 선거판 ‘뒤죽박죽’